

# 경남일보

HOME > 정치 > 정치종합

## 합천군,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

김상홍 기자 | 승인 2018.07.19 16:00

합천군은 19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문준희 군수, 각 실·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'행복한 군민, 희망찬 합천' 실현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.

이날 보고회는 사업 추진방향, 연도별 자원확보 대책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

합천군이 4년동안 추진 할 공약사업은 8대분야 80개 세부사업이다.

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, 인구 5만 회복 및 인구증가를 위해 △24시간 어린이집 운영 △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△육아지원센터 운영 시간 연장 △빈농가 저가 임대 및 도시민 유치사업 △다문화·새터민 지원사업 등을 추진 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△황강직강공사 타당성 검토 △국제복합도시 유치 지원 사업 △지역상품 우선사용 조례 제정 △도심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부자농업인, 축산웅군 위상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△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0억원 조성 △농산물 순회 수집, 판매사업 확대 시행 △국립한국농수산물대학 경남분교 유치 △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.

이외에도 관광, 복지, 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△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및 합천역사 유치 △황강가치 재조명 및 개발사업 △전천후 게이트볼장 전환 ▲ 신재생 에너지 융·복합 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 합천군의 미래를 튼튼히 할 신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문준희 군수는 "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추진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,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기내에 공약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"을 당부했다.

김상홍기자



합천군은 19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'행복한 군민, 희망찬 합천' 실현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. 사진제공 = 합천군

저작권자 ©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 김상홍